

코로나19 확산 예방 행정력 집중

장수군, 주말동안 1명 추가 확진... 식품접객업소·종교시설 등 731개소 점검 강화

장수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일간 멈춤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소 및 종교시설 등 총 731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군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흥 및 단란주점에 대해 영업금지 조치했으며, 식당 및 카페 등은 21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21시부터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22~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되도록 했다.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영업금지 조치했으며 숙박업소는 객실 수의 2/3이내 예약을 제한했다.

종교시설은 좌석 20%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다.

특히 군은 전 직원을 투입해 관내 374개소(일반음식점 319, 휴게음식점 55)에 대한 일제점검을 주 2회 실시하는 한편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전자출입명부 및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 등 여부, 2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행위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별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1단계 시정조치 및 경고(2차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2단계 1



장수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일간 멈춤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소 및 종교시설 등 총 731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사진은 식품접객업소 마스크 배부 모습)

차 위반업소 재점검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발(병행가능), 3단계 행사고발(집합금지 위반 시)·구상권 청구(확진자 발생 시)다.

'10일간 멈춤 운동' 내용은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 꼭 착용하기 ▲가족과 지인 만남은 자제하기 ▲불필요한 관내·관외이동 자제하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 및 가족, 외부인의 장수군 방문과 만남 자제 등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고 장수·장계시장 등 문화·체육·복지·관광 등 공공시설물 전 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로부터 방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상황이 아닌 만큼 절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10일간 멈춤 운동' 등 장수형 거리두기 및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장수군은 계속해 온 행정력을 투입해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주말동안 격리중이던 접촉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가 32명으로 늘었으며, 17일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는 총 32명이며 이중 4명이 완치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청년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국가 검진 연계 사후관리 지원

무주군이 청년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취업과 학업, 실업 때문에 지친 청년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수급자 중 기본체력검사를 비롯한 신장 기능검사와 고지혈증검사, 간 기능검사 등 국가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로 나온 만 19세~39세 청년(희망자)이다.

군은 이들을 증상에 따라 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금연

클리닉,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지로 연계해 맞춤형 사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소모품과 증상 개선을 위한 영양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에서는 예비부부와 신혼(결혼 1년 이내)의 첫 아이 임신 전)부부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도 진행한다. 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특화품목 현장 리포트 추진

진안군은 17일 농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리포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리포트는 특화품목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및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사업 발

굴 및 육성하기 위한 기본 조사이다.

현재 현장 리포트를 2회(딸기, 토마토) 추진하였으며, 농가별 경영규모 및 출하실적, 시행착오, 재배기술, 건의사항 등 종합적인 의견을 정취했다.

향후 현장 리포트 품목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관련부서, 농민단체, 품목별

대표,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지역 특화품목 선정 및 육성방안 종합계획 등 농업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별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생산지원, 기술지도, 조직화, 판로확보, 출하지원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육성방안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17일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농촌협약' 공모사업 막바지 준비를 위해 황인홍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 주민,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대표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열고 공모 선정에 체계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농촌협약' 공모 선정 총력

무주군, 농촌협약위원회 열고 체계적 준비 작업

무주군이 향후 '살기 좋은 무주 건설'의 기초가 될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17일 무주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농촌협약' 공모사업 막바지 준비를 위해 황인홍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 주민,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대표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열고 공모 선정에 체계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농촌협약위원회에서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송금현 부군수,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혜천 센터장, 백승석 한 국농어촌공사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각 분야의 거버넌스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군은 지난 1월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와 주민협의회를 각각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농촌협약위원회를 열어 농촌협약 공모를 위한 마

무리 작업을 들어갔다.

회의에 참석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무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살맛나는 무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군은 오는 5월중 농촌협약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서류 심사와 평가를 통해 오는 6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무주군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최대 국비 3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향토음식 '산골애찬' 관광 상품화 사업 추진

진안군은 17일 지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굴한 진안고원 향토음식 '산골애찬(愛饌)'의 대중화를 위해 이를 연계한 관광 상품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골애찬(愛饌)'이란 진안고원의 특색 있는 식재료인 돼지고기, 산나물, 더덕, 다슬기 등을 활용하여 발굴된 음식들을 대표하는 상표로 그 메뉴로는 산나물불고기, 더덕불고기, 소토실 콩나물밥, 한들 시래기밥, 어은골 무밥, 묵밥, 다슬기 수제비 등이 있다.

군은 '산골애찬(愛饌)'을 진안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음

식점 8개소에 시범 적용 중이며, '마음만들기 1번지! 진안'이라는 이미지와 연계해 마을식당에도 순차적으로 보급·적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마을별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산골애찬(愛饌)' 메뉴를 추가 발굴 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체험관광 운영에 관심이 높은 마을 6개소를 선별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스토리라인을 구축하고 관광객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관광 상품화를 추진 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듣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52억원으로 일반회계 226억원, 특별회계 26억원이며, 총 예산액은 4,816억원으로 2021년 본 예산보다 5.51% 증가했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백신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반디랜드 가로등 LED 전등으로 정비

무주군이 무주군의 대표 관광 명소로 꼽히는 반디랜드 내 설치된 노후 가로등에 대해 LED 가로등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반디랜드 백운산 생태관 주변 메탈할라이드 보안등 20개를 LED 전등으로 교체한다. LED 전등의 경우 메탈할라이드 전등보다 전기료가 훨씬 적다.

이에 따라 군은 연간 2~300만원의 공공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군은 반디랜드 내에 설치된 기존 LED 가로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등으로 정비한다. 이곳 가로등의 경우 노후화돼 있어 어두워지는 등 반디랜드 관광객들의 보행에 적잖은 지장을 끼쳤다.

노후 가로등 공사가 이달 마무리되면 반디랜드의 통나무집과 야영장,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주변에 빼어난 야간 경관으로 변모되면서 체류형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편리한 야간보행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